동아시아 차인들 '茶德' 논하다

〈차의 덕〉

10월1~2일 통도사 일원서 제3회 국제차문화학술대회

韓中日 제다교류전도 진행
종정 성파스님 법어로 개막
제다 시연으로 차문화 공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학술대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통도사 일원에서 '제3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했다. 한국·중국·일본의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차의 덕(茶德)'을 주제로 동아시아 차문화의 사상과 전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어로 시작을 알렸다.

성파 스님은 "이 자리는 단순히 차를 마시고 교류하는 일반적인 다문화 행사가 아니라, 차를 통해 마음을 닦고 근본을 찾는 자리"라며 "차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스님은 "차문화의 발전을 통해 각자의 심성을 밝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진을 기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민 한양대 교수는 '한국 차론상의 차덕론-삼종 다부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차론은 질병 치료, 소화와 숙취 해소, 정신 안정 등 실천적 효용이 두드러진다"며 "차덕론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며 약용음료로의 활용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차덕은 건신(健身)과 정신 안정에 초점을 두고 생활 실천성과 응용성을 중시해왔다"며 "앞으로는 차의 미덕과 미학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소법 중국 호남사범대학 교수는 '중국 차덕의 변천사 연구'에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정신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현대의 차덕은 간편한 방식, 심미적 매개, 건강과 양생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차의 물질적 속성과 정신적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 차덕의 성격과 기원'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서 나선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일본 차덕론은 중국의 십덕(十德)을 수용·체계화하고 선불교 문화와 결합해 발전했다"며 "좌선 수행과 연결돼 졸음을 없애고 정신 집중을 돕는 기능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 차덕론의 전래 과정은 향후 사상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 제다실에서는 '한중일 제다교류전'이 열렸다. 한국·중국·일본의 차 전문가들이 각국의 전통 제다법을 시연하며 교류의 장을 펼쳤다.

한국은 통도사 차문화대학원팀이 통도사 다원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한국차를 선보였고, 중국은 진소법 교수와 이행철 절강공상대학 교수가 항주의 명차 용정차를, 일본은 마쓰이 에스로 마쓰이엔 대표와 오이시 유지로 오이시 농원 대표 등 5명이 녹차와 홍차를 소개했다.

법정 스님 15주기…'무소유' 첫 학술세미나 열린다

10월 19일, 서울 길상사서
'무소유를 말하다' 주제로
인경 스님 · 김재성 등 발제


길상사 주지이자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이 9월 29일 길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9일 열릴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 계획을 밝혔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이다."

청빈과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며 시간과 종교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1932~2010)의 원적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10월 19일 오후 2시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스님의 사상과 삶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처음으로 마련된 세미나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세미나는 김호성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8명의 불교계 학자가 참여해 4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간다.

이계진 아나운서(전 맑고향기롭게 이사)의 기조연설 후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김재성 능인대학원 대학교 명상상담학과 부교수)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인경 스님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법정 스님의 수행관과 심리치료적 의미(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법정 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 과정(여태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학박사)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 백형찬 전 서울예술대 교수, 신진욱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백경임 동국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발표와 토론 후에는 참석 대중과 함께하는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길상사 주지이자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은 9월 29일 길상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법정 스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공모와 학술상 제정 계획을 밝혔다. 또 길상사 경내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한 '무소유 문학관' 건립 구상도 공개했다.

법정 스님의 맞상좌인 덕조 스님은 "문학가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불교적 교리를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시킨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사회와 개인에게 깊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10월 오대산 월정사서 '연기의 숲' 만난다

10월 17~19일 월정사서
'2025 오대산문화축전'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강원도 오대산이 '연기의 숲'으로 장엄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대산 일원과 경내에서 '2025 오대산문화축전'를 개최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축전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 가치 회복과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하는 문화축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첫날인 17일에는 〈화엄경〉의 철학을 담은 화엄변상도 목탱화 봉안식으로 시작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인 팔각구층석탑 탑돌이가 이어진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전국 백일장·사생대회,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휘호대회, 오대산의 역사·문화를 토대로 한 지구시민포럼도 열린다.

둘째 날인 18일은 에는 전국 불교합창단이 모여 합창제를 열고, 장엄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이 봉행된다. 이어 축제의 개막식과 함께 한국창작무용·국악·사운드스케이프가 어우러진 '오대의 숨 : 다섯 길' 개막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할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화엄 탑돌이'는 참가자 모두가 원무(圓舞)를 이뤄 탑을 돌며 화엄사상의 '연결'을 상징하는 현대적 불교의식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월정사 탑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 프로그램 '생명의 길'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탑을 돌며 울림과 호흡을 나누며 축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 장(場)으로 마련된다. 또 △숲길 달리기(연RUN) △자수·빗자루 체험(연MADE) △만다라 만들기(연ART) △전통차 체험 △오대산 승시(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열려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개방되며 일부 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생명의 길'은 10월 2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033-339-6800

신중일 기자

문화사업단,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14곳 사찰서, 1만명 혜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4곳 사찰에서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해 진행되며 선착순 1만여 명에게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 한해 1만 5천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www.eng.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가을빛으로 물든 사찰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고요함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가을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조 실 설당종우
회 주 대경법달
주 지 종 천 / 부 주 지 정 문
부 주 지 성 행 / 총 무 정 수
기 획 성 요 / 교 무 성 광
재 무 성 각 / 포 교 성 담
사 회 성 주 / 호 법 성 심
문 화 효 신 /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